

새 하늘과 새 땅(이사야서 65:17, 60:19) 구세주가 계신 이 땅에서 이룩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의 세상

이사야서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에 관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전멸하게 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때에는 그늘과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잡자지 않는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명한 빛을 받으면 피로한 것이 없어집니다. 광명한 빛은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의 여러 분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사람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고로 '나'라는 주체의식 즉 아상(我相)이 없어져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변합니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몸 즉 육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람이 날아 다니게 되어 있고 사람은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앞에 있고,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앞에 있고, 떡이 먹고 싶으면 떡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없고 나이 어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기 때문에 똑같이 십칠 세의 아주 젊은 몸이 되어 마음먹은 대로 달나라에도 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 초 일 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다시 1시간이 되지요. 이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달나라나 별나라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 초도 안 걸려서 달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상은 저항을 받는 생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면 바로 바람의 저항을 받지만 그 세상은 바람의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상태로 그대로 그 순간에 됩니다. 순간에 가고 순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빠른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좋지요?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쾌락 속에서 사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제단은 보통 복 있는 사람은 못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복이 아주 많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대대로 적덕(積德)을 한 사람의 자손만 승리제단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게 왜 웃지를 않아요?

'웃으세요' 하는 말을 듣고 그 제야 웃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항상 주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다. 사실은 웃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승리제단 나와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제단 나오면 죄가 소멸되며, 죄가 소멸된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인 마귀의 영, 즉 선악과의 영이 없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아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단지파에서 이긴 자 구세주 출현

성경에는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난다는 말이 써여 있는데 이것은 불경에도 써여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에는 '섬들이 잠잠하라...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려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노는,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고...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뿜며 땅 모퉁이에 서부터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살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섬들이 잠잠하라'라고 했으므로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구세주가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에게 열국의 왕,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것이 동방의 의인은 전지전능 자로서 요한계시록의 이긴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부터 인간으로 화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완성자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가 전지전능자인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한국 땅에서 출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살던 단지파 자손들이 '땅 끝 땅 모퉁이'인 한반도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랄 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

는 민족이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우리 민족이 우랄 알타이산맥에 가서 알타이 사람들과 교역을 해야 살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알타이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알타이 말을 배워 가지고 계속하여 알타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몽고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몽고에서 살다가 다시 만주를 거치고,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가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고조선을 설립했던 겁니다.

고조선을 오천 년 전에 설립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며서 한 말이며 정확히 말하면 3천여 년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에 단지파(단군의 후예) 동북쪽으로 이동 기록 있어

성경 사사기 18장에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갔다는 말만 써여 있지 한국 땅에 머물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한반도에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지파로써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양의 피를 유월 땅 모퉁이'인 한반도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랄 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

는 민족이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 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왕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나라 백성들이 다 죽겠구나' 싶어서 모세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60만 대중을 이끌고 광야를 향해서 갈 때에 흥해가 가로질러 있기에 건너 갈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나라 기마병들이 막 추적을 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급하니까 지팡이를 번쩍 들고 흥해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흥해 바닷물이 갈라지며 벽을 쳐서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긴 그 길로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흥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라땅에 가보면 '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파 조상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이 단이 되었던 것이며 지금도 단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사에서도 우리 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양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후 알타이 말이 발전되어서 오늘의 한국말이 된 것이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깊이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야 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3년 2월 10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인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전지전능한 유일신(하나님)에 의한 창조관으로는 도저히 이 세계 내의 죄악과 부조리를 일관성 있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마귀(죄)의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여 현재와 같은 음양의 구조로 된 세상으로 전락(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고찰해 봄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여기서 마귀는 종교적 의미로서 죄의 대명사이자 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 왔으면 한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 몸 안에 어디 있고, 어떻게 작용되며, 이 세계 내에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종교적인 언어와 논리로써 접근해 보고자 한다.

죄를 알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왜 죄인이라고 할까? 그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무슨 어린 아기가 죄를 짓고 태

어났기에 "죄인이라 말이나"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죄가 무엇이고, 우리 몸속 어디에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분석은 곧,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연히 자유롭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통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태초에 마귀한테 저서 죄의 낙인이 찍힌 채로 태어난 원죄, 그 부모가 지어서 자식으로부터 물려주는 유전죄가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이 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정해진 길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괴롭고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필연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다른 길과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궁극에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피하려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죄, 그 죄를 알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요 급선무다. 흔히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죄의 개념은 훨씬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취급되어져 왔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다. 죄의 유무와 해결에 있는에도 말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와 배경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감추어진 천기(天機)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냄으로 죄의 모든 의문과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기에 이른 것이다.

죄에도 여러 계층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고, 죄는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우리는 죄의 개념을 단순히 규율을 어기는 것이라든지 잘못된 행위로만 알고 있었다. 사실 그러한 죄의 인식은 '죄의 실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이다. 그렇게 단순한 죄의 문제였다면, 인류가 왜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아비규환의 죄악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이 무수한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그 병이 왜 생기게 되었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병과 같은 죄도 어떻게 시작되어서 인간 속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고차원의 정신적 소산물인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분석해보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고, 결국 죽는다는 말인데, 욕심이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리니,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으로 불경에는 "욕심 부리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욕심 부리고 성내고 어

리석은 행위의 주체는 결국, 나라는 주체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교의 경전에는 "보아서 안 되는 것, 들어서 안 되는 것, 말해서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라고 하고 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자아의식이니, 이도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층도 낮은 단계로부터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높은 단계, 심오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각 종교에서 논하고 있는 죄론은 오랜 세월 축적된 삶 속의 경험과 사색을 통하여 얻어진 고귀한 깨달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벽할 수가 있다. 이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일반사회 교육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쉽게 납득할 수도 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유치원에 해당하는 가르침의 수준이 있고, 초등학교 수준, 중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가르침

이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생이 자기 수준에서 안다고 해도 감히 대학교 수준의 높은 단계를 단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죄의 여러 차원과 계층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인간의 고차원적인 세계 3대 종교의 죄의 개념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법이다. 그야말로 죄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속 오장육부를 낱알이 파헤쳐서 속속들이 아는 것과 같은 중요한 맥락이다. 지금까지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모르고 죄의 겉모습만 보고 안다 하므로,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사실 그 정도 죄의 수준은 죄의 본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허공에 발길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 있어 죄의 해결에 대한 시도와 도전은 그렇게 허망하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인류의 총체적인 고통과 불행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주호 기자